2010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대회 개최

창화이지텍(주) 정태건 대표이사,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0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대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행동선언문' 채택 및 '2010 건설협력 증진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0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대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행동선언문' 채택 및 '2010 건설협력 증진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함께 하면, 더 좋은 미래를 건설합니다(Together, We make the Better)'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청원 지식경제부 산업정책관,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박덕흠 대한전문걸설협회 회장 등 주요 정부 관계자 및 건설단체 기관장을 비롯해 건설업계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건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권홍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가 위상이 높아졌지만, 건설산업은 아직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상생협력

▲ 이날 행사에서 정태건 창화이지텍 대표이사(대한설비건설협회 감사)는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진 왼쪽 세 번째:정태건 대표이사, 왼쪽 네 번째: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의지를 다짐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상생은 어느 분야보다 절실하므로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 상생제도와 함께 건설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상생의 길 구축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정부는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정착을 목표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건설산업 참여주체로서 동반성장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호 간 협력관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 △자재·장비업자와의 협력방안 추진 △건설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행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2010 건설협력 증진대상' 시상식에서 포스코건설[대표이사 정동화]이 공정거래·자금지원·공동기술개발·경영자문·교육지원 등 종합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종합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협력부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에 창화이지텍[대표이사 정태건], 두인씨앤티[대표이사 김창률], 성백산업개발[대표이사 박창서], 협승토건[대표이사 김만석]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에 백아건설[대표이사 조용기] △건단련 표창 성건토건[대표이사 임성구], 삼원에스앤디[대표이사 김태열], 삼진일렉스[대표이사 김성관], 푸른공간[대표이사 조광형] 등이 수상했다.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기본은 상호신뢰"

▲ 정태건 창화이지텍(주) 대표

창화이지텍의 정태건 대표(대한설비건설협회 감사)는 지난 1981년 회사 창립 당시 설비시공기술자의 불안정한 생활환경으로는 좋은 품질의 시공기술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내집갖기 운동'을 추진했다. 창화이지텍 직원들은 회사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3년 만에 내집갖기에 성공하게 된다. 이는 직원들의 안정된 생활로 이어져 2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근속자가 가장 많은 회사가 되었다.

창화이지텍은 품질과 안전에서 인정받는 기계설비 전문업체로 성장해 SK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등과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분야는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설비분야만을 전문으로 매진한 게 강점이 된 것이다. 또한 건설 재해 예방을 우선으로 친환경적인 시공에도 초점을 맞춰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정태건 대표는 기계설비공사의 기술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및 신기술 신공법 개발에 매진, 대한설비건설협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공사 및 서울 88올림픽아파트 공사 등을 통해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한편 2002년 시공한 분당 파크뷰 현장에서 무재해 200만 시간을 달성한 결과 SK건설과 포스코건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데 이어 2006년 SK건설로부터 안전부문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쌍용건설 우수협력업체 협의회인 '용건회' 전임 회장인 정태건 대표는 역임 당시 회원사의 권익 보호 및 상생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태건 대표는 "상생이란 협력업체는 교육훈련과 기술개발로 정밀시공 및 고품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기본은 상호신뢰"라고 강조했다.